

# 삼양제넥스, 2004년 순익 216억원

3월2일 정기주총에서 김량 사장 재선임 ... 매출액은 2434억원 기록

삼양사의 계열사 삼양제넥스는 3월2일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량(金亮) 대표이사 사장을 재선임했다.

김량 사장은 2002년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된 뒤 2004년 승진해 현재까지 사장직을 맡아왔다.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차장을 지냈던 김효성 기획예산처 예산자문회의 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.

또 보통주에 현금 28%(주당 1400원), 우선주에 현금 29%(주당 1450원)를 각각 배당하기로 결의했다.

삼양제넥스는 2004년 매출액 2434억원, 당기순이익 216억원을 기록했다.

<화학저널 2005/03/03>